

황색육아종성 담낭염

— 3 증례 보고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박재훈 · 김윤화 · 박용구 · 이주희 · 양문호

서 론

황색육아종성 담낭염(xanthogranulomatous cholecystitis)은 담낭에 드물게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1970년에 Christensen등¹⁾에 의해 섬유황색육아종성 염증(Fibro-xanthogranulomatous inflammation)으로 보고된 이후 Ceroid granuloma²⁾, Ceroid-like histiocytic granuloma³⁾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문헌에 보고되었다. 이 질환의 정확한 발생 빈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Takahashi등⁴⁾에 의하면 외과적으로 절제된 담낭에서 1.2%의 발생빈도를 보고하고 있으며, 발생연령도 20세에서 81세까지 다양하지만 특히 중년의 여성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임상적으로 이 질환은 주위조직, 특히 간동으로의 침윤성 성질과 결절성 병변을 형성함으로써 방사선학적으로도 악성종양으로 오인되기 쉽다는 점에서 다른 질환과의 감별진단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저자들은 악성종양으로 오인되어 담낭 절제술을 시행한 후에 황색육아종성 담낭염으로 진단된 3예를 경험하고 임상증상, 방사선소견, 다른질환과의 병리학적 감별점에 관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바이다.

증 례

1. 임상소견

증례 1: 환자는 67세 여자로서 2개월 전부터 시작된 반복성 우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초음파소견상

접수: 1990년 5월 15일, 게재승인: 1990년 11월 12일
주소: 서울·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우편번호 130-702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해부병리학교실, 박 재 훈

전반적인 담낭벽의 비후와 함께 담낭내에 담석이 관찰되었다. 복부전산화 단층촬영소견상 담낭과 간조직이 심하게 유착되어 있으며 간실질과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담낭암이 간으로 침윤한 소견으로 생각되었다.

증례 2: 62세된 남자환자가 8개월전부터 시작된 지속적인 우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초음파소견상 담낭이 10×6×5 cm으로 커져 있었으며 담낭벽이 2 cm까지 비후되어 있었다.

증례 3: 환자는 53세 남자로서 2개월 전부터 시작된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초음파소견상 담낭벽이 1.5 cm까지 비후되어 있고 역시 담석과 함께 염증성소견이 관찰되었다.

2. 병리학적 소견

육안적으로 3증례 모두 유사한 소견으로, 담낭크기의



Fig. 1. Gall bladder characterized by markedly thickened wall with poorly circumscribed yellowish granular necrotic ar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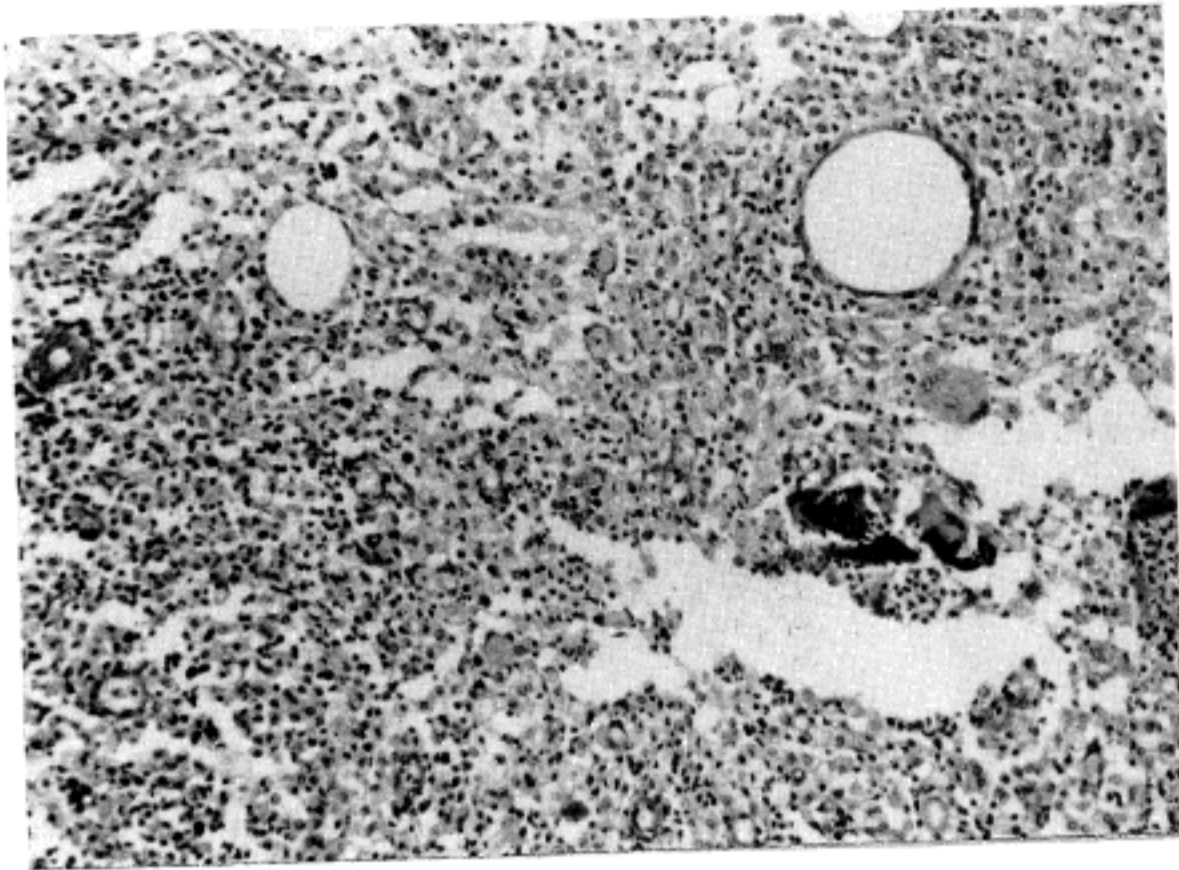


Fig. 2. Diffuse infiltration of the foamy histiocytes and foreign body giant cells with bile pig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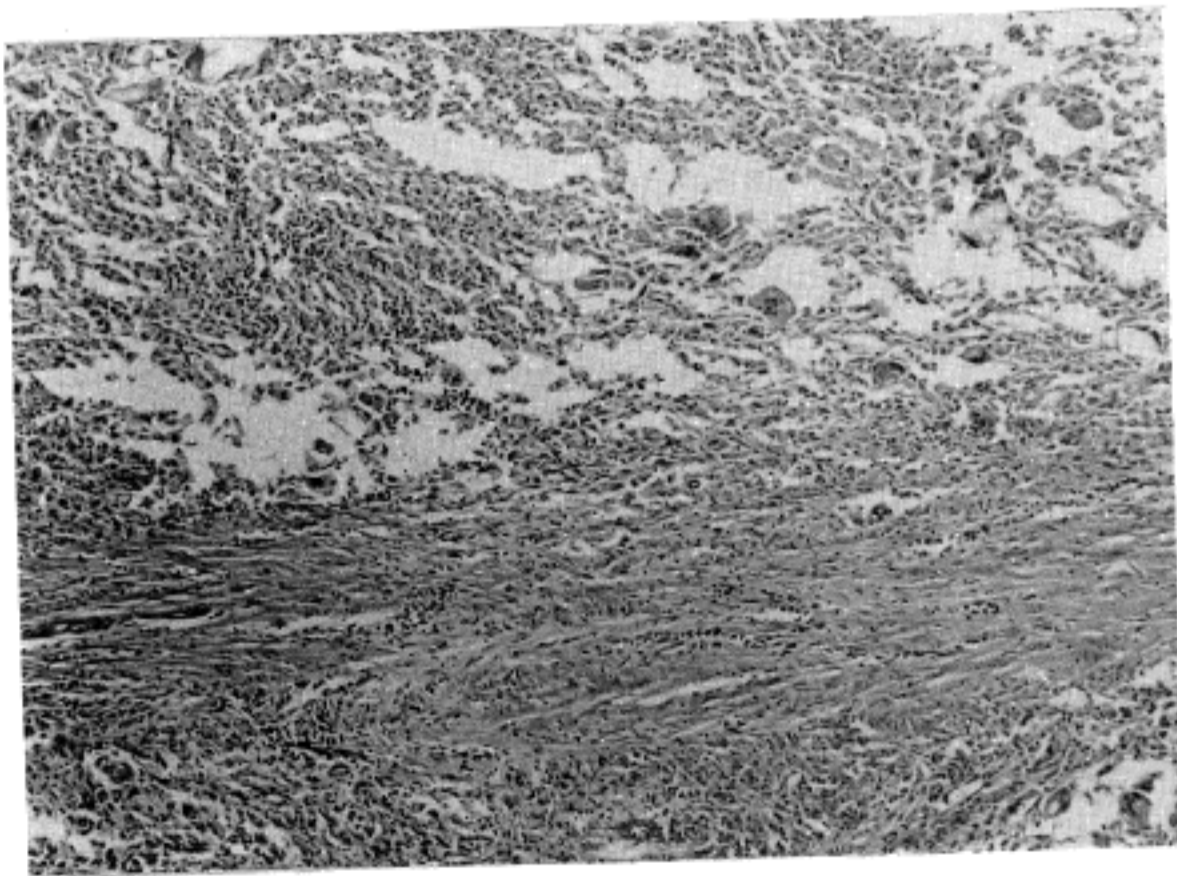


Fig. 3. Fibroblastic proliferation and mononuclear infiltration associated with multinucleated giant cells.

증가 및 담낭벽의 비후가 관찰되었고 절단면상 2~5 mm에서 8~10 mm크기의, 주위조직과 경계가 불명확한 황색의 결절성 및 괴사성 병변이 관찰되었다. 병변은 부드러운 과립상으로 병변의 주변으로는 회백색의 섬유화된 부위에 의해 둘러 싸여져 있었으며, 첫번째 증례에서는 담낭벽과 간실질이 단단히 유착되어 있었다(Fig. 1). 현미경소견상 정상적인 담낭벽은 섬유아세포, 대식

세포 그리고 임파구 및 형질세포로 구성된 결절성의 병변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대식세포는 투명하거나 거품양세포질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의 세포는 담즙과 cholesterol을 탐식하고 있었다(Fig. 2). 또한 담관 밖으로 나온 담즙으로 인한 이물반응과 주변의 섬유아세포의 증식 및 교원섬유침착이 관찰되었다(Fig. 3).

고 찰

황색육아종성 담낭염은 Christensen등⁴⁾이 처음으로 섬유황색육아종성 염증으로 기술한 이후 Ceroid granuloma⁵⁾, Ceroid-like histiocytic granuloma⁶⁾등의 여러가지 이름으로 문헌에 발표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도 김등¹⁾, 정등²⁾, 성등³⁾이 황색육아종성 담낭염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 질환의 정확한 발생빈도는 알 수 없지만 Takahashi등⁶⁾에 의하면 외과적으로 절제된 담낭의 1.2%에서 발견된다고 보고하였으며, Robert등⁷⁾에 의하면 10만 명당 1.7%의 발생빈도를 보고하고있다. 또한 발병연령도 20세에서 81세까지 다양하며 평균 발병연령은 63.2세로 기술되어있다.

이 질환의 임상적 발현은 담석을 동반하는 일반적인 만성 담낭염과 특이한 차이점을 찾을 수 없고, 급성담낭염의 증상, 우상복부 통증, 오심, 구토, fat intolerance등의 증상을 동반하나, 본 저자들의 증례에서는 특이한 임상 발현은 없었다.

육안소견상 이 질환은 특이한 형태학적 특징을 보여주는 심한 담낭벽의 비후, 불명확한 경계를 갖는 황색의 과립성, 결절성 병변등으로 이는 수술소견상 흔히 악성 종양으로 오인되기 쉬운 소견이다. 현미경소견상 단핵구의 미만성 침윤, 지방 및 담즙을 탐식한 대식세포, 결절성의 섬유아세포의 증식등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간질내의 담즙, cholesterol crystal과 이로인한 이물반응을 볼 수 있다. 주변으로 침윤성 성장을 하는 섬유아세포와 이물성 거대세포, 높은 세포밀도 및 방추형세포의 증식으로 인해 담낭에 드물게 발생하는 거대세포암종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다형성, 역형성, 비특이성 세포분열등이 없다는 점으로 감별할 수 있다.

이 질환의 성인은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cholesterol과 담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⁸⁾ Fligel등⁹⁾은 Rokitansky-Aschoff sinus를 통해 간질조직내로 스며든 담즙과 이에대한 간질조직의 반응이 이 질환의 성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임상적으로 이 질환은 방사선소견이나 수술소견상 악성 종양으로 오인되어 불필요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만성 담낭염과 따로 분류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 론

저자들은 임상적으로 악성 종양으로 오인되기 쉬운 황색육아종성 담낭염 3예를 경험하고 그의 특징적인 임상적인 발현과 병리조직학적 특성에 관하여 간단한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본 증례는 육안적으로 담낭크기의 증대, 담낭벽의 비후 및 황색의 결절성병변을 특징으로 하였으며 현미경적으로 거품양 세포질을 갖는 단핵구의 미만성 침윤, 섬유아세포의 증식 그리고 담즙에 의한 이물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 1) 김기권, 이상숙, 정재홍 : 황색육아종성 담낭염. 대한 병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1989, A61
- 2) 전재홍, 김윤미, 남종희, 박종태, 유주용, 조규혁 : 황색육아종성 담낭염 1예보고. 대한병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1989, A134
- 3) 성순희, 조미연, 양우익, 최인준 : 황색육아종성 담낭염 1예보고. 대한병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1989, A134
- 4) Christensen AH, Ishak KG: *Benign tumor and pseudotumor of the gall bladder. Arch Pathol Lab Med 90:423-432, 1970*
- 5) Amazon K, Pywlin AM: *Ceroid granuloma of the gall bladder. Am J Clin Pathol 73:123-127, 1980*
- 6) Takahashi K, Oda K, Hakozaiki H, et al: *Ceroid-like histiocytic granuloma of gall bladder. Acta Pathol Jpn 26:25-46, 1976*
- 7) Robert KM, Parsons MA: *Xanthogranulomatous cholecystitis, clinicopathological study of 13 cases. J Clin Pathol 40:412-417, 1987*
- 8) Goodman IO, Ishak KG: *Xanthogranulomatous cholecystitis Am J Surg Pathol 5:653-659, 1980*
- 9) Fligel S, Lewin KJ: *Xanthogranulomatous cholecystitis; case report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Arch Pathol Lab Med 106:302-303, 1982*

— Abstract —

Xanthogranulomatous Cholecystitis

— 3 cases report —

**Jae Hoon Rark, M.D., Youn Wha Kim, M.D.,
Yong Koo Park, M.D., Ju Hie Lee, M.D.
and Moon Ho Yang, M.D.**

*Department of Pathology, School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Xanthogranulomatous cholecystitis is a rare form of inflammatory disease of the gall bladder and was first described in 1970 by Christensen and Ishak as fibroxanthogranulomatous inflammation of the gall bladder. Recently authors experienced three cases of xanthogranulomatous cholecystitis, two of which were

erroneously diagnosed as malignant tumor in preoperative clinical and radiological examinations. Grossly, the gallbladders were enlarged and the walls were thickened with yellowish granular necrotic areas ranging from a few millimeters to 1.0 cm in diameter. Microscopically, all of three cases showed diffuse infiltration of the foamy histiocytes containing bile pigments and mononuclear leukocytes associated with fibroblastic proliferation and foreign body reactions. The pathogenesis of the xanthogranulomatous cholecystitis is uncertain, but opinion favours an inflammatory response to extravasated bile probably, from ruptured Rokitansky-Aschoff sinuses. Three cases of xanthogranulomatous cholecystitis with brief review of literature are presented

Key Words: Xanthogranulomatous cholecystitis,
Foamy histiocytes, Foreign body reaction